

**TIP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에 문을 여는 체트워 인터내셔널은 국제학교다. 보다 정확히제는 '외국교육기관'이다. 외국인학교와는 다르다. 국제학교는 올해 처음 개교하자면 외국인학교는 서울에만 20개가 있다. 국제학교엔 최대 정원의 30%까지 내국인들이 입학할 수 있지만, 외국인학교는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다. 외국교육법에만 설립할 수 있는 국제학교와 달리 국내 학교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다.



체트워 인터내셔널 중·고등학교동. 상이 넘어 햇빛이 건물 속까지 밝힌다. 건물 자체가 한옥처럼 'ㄷ'자 구조다

## 대학 캠퍼스냐고요? 인천에 상륙한 국제학교입니다

내달 문 여는 '체트워 인터내셔널' - 학교 건축 전문가 2명과 미리 가보다

외국 명문 사학이 국내에 상륙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체트워 인터내셔널이다.

연간 학비가 3000여만원이나 된다. 이 학교는 건물부터 다르다. 리처드 워킹턴 교장은 "교육 목적에 따라 구성된 맞춤형 교실과 최첨단 시설로 자았다"고 말했다.

교육의 시작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건물 설계 단계부터 시작된다. 게 명문 사학들의 생각이다. 체트워의 건물은 토론·발표 위주의 교육을 실현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는 것. 표준형 설계로 지어지는 우리 학교와 구조, 내부 설비가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 김경민 전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사장, 류호섭 동대건축학과 교수 등 학교 건축 전문가 2명과 함께 이 학교에 갔다. 글=이정봉 기자, 박해민 대학생인턴기자 mole@joongang.co.kr 사진=권학재 사진전문기자 shotgun@joongang.co.kr



복도 크트머리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개방형 독서실. 교실을 나와서도 편하게 앉아 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기 전에 '살아가는' 곳**

이 학교는 'ㄷ'자 구조다. 한옥 구조에서 따왔다고 했다. 이런 구조는 어느 위치에서든 다른 곳으로 갈 때의 동선이 크게 줄어든다. 일자형에 강당·체육관 등이 오히려 서 있는 학교들과 다른 모습이다. 초등학교동과 중·고등학교동 사이에 체육관·수영장·대강당 등이 있는 시설들이 가로지른다. 학생들이 이런 시설에 접근하기 쉽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건물 앞에 작은 정원을 뒤 산책을 하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류 교수는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주공간"이라며 "그래서 생활환경을 감안한 통선과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라기보다 주택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 초등학교 교실 안에는 개수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 오피스텔과 비슷하다. 중·고등학교동의 경우 층마다 칸막이를 한 책상을 놓고 탁자를 뒤 작은 독서실처럼 꾸며져 있다. 마치 공부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볍게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과 같다. 도서관도 학교 건물 가운데에 있어 교실에서는

지척이다.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쉽게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 동시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교실에 햇살 가득, 통유리 벽으로 쏟아지는 빛**

체트워 인터내셔널은 남향도 북향도 아니다. 사방위와 비스듬하게 지어져 한쪽 교실은 남동쪽을 향하고 한쪽은 북서쪽을 향한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교실의 경우 바깥쪽 벽이 통유리로 돼 있어 빛이 교실 깊이 파고든다. 그럼에도 밝이 세지 않다. 유리벽 앞에 아예 나무로 된 차양이 비스듬히 걸려 있어서다. 실내에 발을 댄 경우는 식으로 간접 조명을 담은 교실 안쪽도 밝혔다. 창 쪽은 눈이 부시지 않았고, 안쪽은 캄캄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교실 내 조명의 불균형은 학습 불균형을 부른다"며 "이곳은 실내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밝다"고 말했다.

학교 건물은 북도와 흠에도 빛이 쏟아졌다. 각 방향에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를 많이 썼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졌는데도 학교가 밝아 보였다. 류 교수는 "채광에만 신경을 써도 학교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음악실·미술실·다용도실 - 교실보다 많네요**

초등학교 교실 32개, 중·고등학교 교실 42개. 하지만 이곳은 교실보다 부대공간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물론 운동장·시설동을 빼놓고 하는 말이다. 초등학교만 해도 음악실·미술실·과학실이 다수 설치돼 있고, 널찍한 다용도실과 카운슬링 센터도 있다. 다용도실은 이렇만 들으면 창고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실내체육관을 안상케 하는 널찍한 공간이다. 이곳은 초등학교생을 위한 작은 강당으로 쓰기도 하고, 비 오는 날 게임을 할 수 있는 간이 운동장으로 쓰기도 한다. 국내 학교들과 달리 교실 밖에도 학생들이 목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김 전 이사장은 "수업과 학습만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친구들과의 놀이 등도 교육의 영역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체트워 인터내셔널은**

미국의 명문 사학 중 하나로 다음 달 7일 개교하는 송도 캠퍼스는 건축설계회사 KPF의 건실이 설계를 맡았다. 건설비는 1500억원이 투입됐다. 교육 방식은 교사가 주도해 교과서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채택하고 있다. IB는 그래서 수업도 과목(subject) 위주가 아니라 과정(process) 위주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며 배우는 스페인 내전'을 주제로 미술·사회·세계사를,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일어나는 일'을 주제로 물리·수학·생물학 등을 함께 공부하는 식이다. 체트워 인터내셔널 리처드 워킹턴 교장은 "학교의 표현력을 키우는 기존 교육과 함께 한국 대학입시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 교실 안에 화장실, 문 열면 운동장, 조리시설 갖춘 어학실까지 ...

채드릭 인터내셔널은 첫눈에 작은 대학교 캠퍼스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어린 학생들의 감수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교실·도서관·복도·가구 모두에 이러한 배려가 살아 있었다. 정문·현관에서 교실을 거쳐 교장실과 과학실까지 채드릭 인터내셔널의 구성구석을 살살이 훑었다.

글=이정봉 기자, 박해민 대학생 인턴기자 mib@joongang.co.kr 사진=권혁재 사진전문기자 shotgun@joongang.co.kr



## 외부인이 침입할 틈이 없다

정문에 들어서자 보안요원이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했다. 취재기자인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초등학교용으로 들어서는 현관은 한 군데다.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치는 것은 쾅정실이다. 쾅정실의 전면은 봉유리로 돼 있어 들어온 이가 한눈에 보인다. 낯선 이로부터 교실의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 안내가 필요한 학부모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다.

교장실도 마찬가지다. 국내 학교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의 교장실은 중·고등학교 등꼴같이 환히 보이도록 벽 2개가 모두 유리로 돼 있다. 김경민 전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사장은 "교장실은 권위적 공간이 아니라 학생을 살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긴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총마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노출권리프트 구조인데도 모사리는 동글게 마감돼 있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밀한 흔적이 엿보였다.



## 일반·운동장·복도로 통하는 문 3개 '열린 교실'

초등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섰다. 교실 같기도 하고 오피스텔 같기도 했다. 우선 공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다. 절반은 티일, 절반은 카페이 같았다. 티일이 깔린 곳에 서는 미술·과학실 등 가능하도록 했다. 개수대가 설치돼 있어 금방 씻고 뒤를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카페이 깔린 곳에서 합선식 수업이 이뤄진다. 교단이 있었고, 교사용 책상은 프로젝터·컴퓨터 등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든 컨트롤 타워였다. 김 전 이사장은 "이런 형태의 교실 구조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주입하는 지도자보다 수업을 돕는 보조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반 교실로 드나드는 문도 있다. 필요에 따라 문을 옮겨가며 수업을 받고 도레끼리 어울리기 쉽도록 했다. 대운동장 외에도 초등학교용에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 놀이터 같은 운동장이 4개 있다. 지상에서 움푹 들어갈 수도 만들었다. 중·고등학교용의 간선 없이 도레끼리 놀도록 설계했다. 또 이 운동장은 현관을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과 바로 접해 있어 문만 열면 나가 볼 수 있다. 복도쪽, 정쪽, 벽쪽 등 3곳에 문이 나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실 사이에 10명 남짓의 '프로젝트 룸'이 따로 있다. 각각 다른 수업을 듣다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 모여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교실 밖을 나가도 앉아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탁자와 의자가 여기저기 있다. 과학실도 교실 수의 3분의 1에 가까운 13개가 설치돼 있다.

## 화상 수업·토론 가능한 장비 갖춰

교실마다 스마트보드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터가 설치돼 있었다. 보통 프로젝터처럼 빔을 쏘아 화면에 비치게 하지 만 거기에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이를 학생들의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 시설도 국제학교로는 최초로 갖추고 있다. 이는 TV에 카메라를 달아 화상 수업 도중에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채드릭 인터내셔널은 현재 LA 본교와의 협업 수업을 시작으로 세계 85개 학교의 네트워크인 라운드 스퀘어 스텝과의 교류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해영 홍보이사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교원학생 제도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높고 쉬고 떠드는 도서관·누워서 책 볼 수도

도서관은 모든 교실로부터 기기 편하도록 학교의 정가운데 위치했다. 초등학교 도서관은 각양각색의 탁자와 의자가 설치됐다. 공간 자체도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다. 책 읽으러 가는 곳이라기보다 놀이공간처럼 보였다. 서재도



천장이 배아랫부분 모양으로 만들어진 중·고등학교 도서관. 모퉁이 매달려 회사한 분위기를 낸다.

낮고 뒷부분을 구불구불하게 처리해 그 위에 놓거나 기대 책을 볼 수 있게 했다. 쿠션도 준비돼 있었고 속 들어가 혼자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디렉팅 같은 것도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초등학교의 도서관은 대화 도서관처럼 정자세로 앉아 책만 들여다보는 공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쉬다가 책을 볼 수도 있고, 앉드려 볼 수도 있게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도서관은 카페와 같은 느낌이다. 천장에 배 모양의 구조물이 붙어 있었다.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도서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다.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는 열람 공간, 노트북을 들고와 쓸 수 있는 개인 공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토론할 수 있는 부스. 열람 공간에서는 책을 올려놓으면 대출이 저절로 되는 전자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중·고등학교용에는 '블랙박스 시어터'라고 불리는 표현 공간이 있다. 소규모 강당으로 네 벽에 좌석이 설치돼 있고 중앙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토론과 발표 공간으로 이용된다.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가 멀리까지 잘 퍼질 수 있도록 벽에 패널 조각을 달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류호성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토론과 발표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형태의 표현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어학실도 특이하다. 보통 칸막이와 헤드폰·카세트 레코더 등이 설치돼 있지만, 이곳은 불린과 개수대가 설치돼 있다. 함께 요리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서다. 이 홍보이사는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따라 하면서 언어를 익히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익히는 것이 습득이 빠르고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독특한 디자인 책상·소파, 다 이유 있었네

학생의 생활을 배려하는 디자인은 가구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초등학교에서 쓰는 책상은 앞부분이 좁은 사다리꼴이다. 또 바퀴가 달렸다. 필요에 따라 협동수업이 필요하면 책상 앞부분을 다다다닥 붙여 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 의자도 바퀴는 없지만 가볍고 이동하기 쉬운 형태다. 초등학교 도서관의 소파는 꽃잎 모양이다. 꽃의 가운데 부분에는 물건을 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어린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세를 바꿔가며 책을 본다는 점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도서관 열람용 책상은 일자로 놓아 마주보고 앉는 식이 아니라 반원형으로 벽을 보고 앉을 수 있는 구조였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들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춘기들을 배려한 디자인이라는 설명이다.



7

## 토론 공간, 자유로운 도서관 일반 학교서도 배울 만하네요

모든 학교들이 채드릭 인터내셔널처럼 수영장·실내체육관·대강당을 갖출 수는 없다. 하지만 몇몇 아이디어는 크지 않은 비용으로도 일반 학교에 적용이 가능하다. 함께 이곳을 둘러본 두 전문가가 현재 국내 학교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다.

●중·고등학교에 토론·발표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토론·발표 수업을 한다.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 잘 될 리 없다. 우라.리는 교장실 면적이 넓은 편이다. 학교에 공간이 없다면 교장실을 지금쯤 절반 이하 크기로 줄이고 소규모 토론 공간을 만들어도 될 것이다.

●초등학교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라니 쉬고 볼 수 있는 장소로 디자인하자. 놀거나 읽으러서 혹은 함께 모여서 키득대며 책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책이 얽숙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편하고 친구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흥미를 느낀다.

●복도 자투리 공간에 탁자를 놓자.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오면 앉을 곳이 없다. 운동장 주위에 있는 설치된 벤치가 전부다. 방에 의자가 있고, 거실에도 소파가 있는 것처럼 교실뿐만 아니라 그밖의 공간에서 쉬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도 앉아서 기다릴 곳도 있고, 선생님과 마음 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다. 학교를 보면 계단 주위에 탁자와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의외로 남는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1 전원이 봉유리로 돼 튀어 나오면 보이는 쾅정실.

2 화장실과 사물함이 딸린 초등학교 교실. 사물함 뒤면에는 개수대가 있다.

3 중·고등학교 교실 사이에 있는 프로젝트룸에서 돌아본 한쪽 교실. 프로젝트룸에서는 두 교실의 학생들이 모여 토론·협동 수업을 한다.

4 텔레프레젠스 시설을 이용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학생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5 알록달록한 색깔과 구불구불한 사재로 꾸며진 초등학교 도서관. 아이들이 편한 자세로 책을 볼 수 있도록 자유로운 형태로 꾸며졌다.

6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토론·발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박스 시어터'. 조명·음향 시설을 통해 발표자에 대한 객석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7 초등학교 도서관에 놓인 소파. 앉거나 엎드려 책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